



진드기 생약을 환영하며...

- 2월호에 이어서 -

울산광역시지회장 이 성 배

5. 비넨볼 제품

울산 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인 11월 18일 경남 3개 시군에서 시험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시험을 하는 동안 어찌나 일기도 그렇게 고루지 않은지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월동 포장을 끝낸 상태의 봉군을 소초광을 들어내고 시트지를 벌통 바닥에 까는 번거로운 시험에 응해주신 여러분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전국을 순회하며, 60여 봉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월동포장 전에 왕스, 속살만, 바이바를, 아피틀, 폴팩스, 마브릭, 마이캣트 등 여러 가지 약품들로 진드기 방제를 마친 상태이었으나 비넨볼 투여 후에 적게는 몇 마리 많게는 2,000여 마리씩 진드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진드기가 기존 화학약제에 대한 내성 문제가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는 옥살산 전기방식은 봉구된 상태에서 효과가 있고 비넨볼은 영상 5도 이상에서 봉판이 없는 비산란기 상태에서 사용하면 95%이상의 진드기가 구제되며, 봉판이 있는 산란기에는 35%에서 65%까지 봉판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기에는 6일 간격으로 4회 연속처리(브력방제)할 경우 95%이상의 진드기를 구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봉 문제나 진드기 잔류 문제는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시간을 두고 초봄부터 여름까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울산지회의 50농가가 전 봉군에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양봉농가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친환경 바이오(bio) 양봉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때라고 생

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양봉으로 고품질의 봉산물을 생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자국의 농산물 관세가 10%±인데도 값싼 봉산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예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200톤~300톤이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벌꿀이 선진국엔 수출을 못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으로는 못 들어가는 꿀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렇겠습니까?

농약, 항생제에 대한 내성, 잔류 때문인데, 선진국은 친환경 양봉으로 MRL(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꿀 수입을 막고 있으며,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여 석고, 부저병, 노제마병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양봉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MRL(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면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농약성분의 합성 살충제와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수입 꿀에 한하여 무농약, 무항생제를 요구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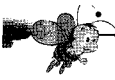
친환경 양봉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

1. 종봉 개량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산란력, 수밀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종봉은 여왕벌 수입과 여왕벌 개량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숫벌 양성을 해야 하며, 여러 봉우님들이 인공수정기술을 익혀서 직접 본인 봉장의 벌군 중에서 질병에 대하여 가장 저항력이 강하며, 산란력과 수밀력이 강한 여왕벌과 숫벌을 선발하여 인공 수정으로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외국산 종봉 수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 : 인공 수정은 눈이 나쁜 사람도 확대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작업 공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2. 양봉기구의 현대화로 벌들의 체질을 강화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며, 사양기술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3. 종봉 개량과 사양기술의 과학화를 우선하며, 부족한 부분을 생약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봉우 여러분 우리도 언제까지 관세(243%)우산에 의존하여 수입 벌꿀을 방어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양봉은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속히, 양봉협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양봉의 원년”을 선포하여 잔류 없는 품질 좋은 봉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도 올리고 당당히 관세도 일반 관세로 전환하여 수입 벌꿀도 받아들이면서 농약, 항생제에 대한 내성 및 MRL(최대 잔류허용기준)을 높인다면 결국은 중국산 꿀이 통관되지도 않을 것이며, 세계속의 한국 양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꿀 수입을 중지한 이후에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봉산물(꿀, 화분,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밀납 등)의 수출 요구가 많이 있으며, 가격이나 모든 조건이 가능한데, 주문에 응하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저병, 석고, 화분떡 그리고 약품 투여 없는 과학양봉에 관하여 우리 봉우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동 포장을 마친 상태에서 실험에 응해 주신 봉우님 그리고 지회장님, 협회 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약을 선진국과 기술 제휴하여 개발한 ‘벌과사람들’의 안 사장님께서서는 처음 실험에 응하던 정신으로 끝까지 변치 말고 어려운 우리 양봉농가를 생각하여 좀더 좋은 약품을 개발 보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 글을 보신 여러 봉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하 농업협상 재개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합의 실패 이후 여섯 달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재개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는 22~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특별회의를 열고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농업협상 그룹 새 의장으로 팀 그로스 뉴질랜드 대사가 선임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여서 회의 운영방식과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세부원칙 마련 등 협상 진척 방안을 찾기 위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비공식 접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국가별, 그룹별로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삭감에 대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 2월 열린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홍콩 각료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논의 진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회의는 팀 그로스 의장 선임 이후 첫 회의여서 상견례를 겸해 농업협상 쟁점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